

이 작은 책자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고 나토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범으로 참여한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침략자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물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일으킨 침략과 점령이 정말 테러를 막기 위함이었냐고, 아프간 민중들에게 약속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대체 어디 갔냐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그 죽음의 고통을 견어쳐올 거냐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집단적 기억 상실에 걸린 우리 자신들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비록 침공은 막지 못했을 지언정 방관자와 공범이 되지는 말자는 호소입니다.

- '머리글' 중에서

정당한 전쟁?

침략과 점령!

아프가니스탄 전쟁 7년의 기록



경계를 넘어

IFIS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정당한 전쟁? 침략과 점령!

아프가니스탄 전쟁 7년의 기록

경계를 넘어

IFIS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정당한 전쟁? 침략과 점령!
아프가니스탄 전쟁 7년의 기록

경계를 넘어 지음
2008년 10월 6일 발행

펴낸곳 **i.f.i.s**) **경계를 넘어**

(120-19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7-7 1층
1F, 117-7, Bugahyeon 1-dong, Seodaemun-gu, Seoul, Korea
전화 (02) 6407-0366
홈페이지 www.ifis.or.kr 전자우편 ifis32@gmail.com

■ 머리말

바뀌지 않는 한,
끝난 게 아닙니다

2 001년 9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미국 상공에서 네 대의 민간 항공기들을 납치해 두 대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에, 또 한 대는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가서 부딪치고, 나머지 한 대는 펜실베이니아의 어느 들판에 추락합니다. 미국 본토를 상대로 한 이 전대미문의 공격으로 모두 2,999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실종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그 충격에 한동안 넋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재빨리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알 카에다 조직을 사건의 주요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하루 빨리 그들을 일망타진해야 세계가 안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에 붙어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테러리스트와 같은 편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9.11 공격이 있는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7일,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시작되었습니다. 침공을 감행한 미·영 연합군의 그림자도 보기 전에 수천 명의 아프간 주민들이 어디선가 날아온 미사일과 포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 카에다를 숨겨줬다는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불과 두달 만에 수도 카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대신 미국이 데려온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가 새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만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간에서는 총성과 화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장례행렬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겨운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모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기장들은 하루 종일 땅바닥만 쳐다보고, 아이들과 여성들은 식량을 구걸하러 거리를 헤맬니다. 농민들은 아편 농사 말고는 먹고살 길이 없고, 생활고에 지친 일부 여성들은 성매매에 나서기도 합니다. 새로이 태어난 아이들은 세상의 빛을 보는 기간이 5년을 넘기기 힘들고, 병원에는 병상과 의약품이 부족해 환자가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외국 점령군과 꼭두각시 정부를 비판했던 어느 여성 국회의원은 이내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잠시나마 여성이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한 건 탈레반 정부 아래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 이를 보고 놀랄만한 여권 신장이라고 뿌듯해해야 할까요?

물론 그 가난한 나라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때려 부수거나 아니면 수수방관했던 국제사회는 수십 조 원을 들여 예전보다 더 좋은 나라를 건설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 조 원의 돈이 이미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 관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호화로운 집에 고급 승용차를 굴리기 시작하고, 불과 몇 년 새 폐돈을 번 사업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대충 짐작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 작은 책자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고 나토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범으로 참여한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침략자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물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일으킨 침략과 점령이 정말 테러를 막기 위함이었냐고, 아프간 민중들에게 약속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대체 어디 갔냐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그 죽음의 고통을 견어치울 거냐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집단적 기억 상실에 걸린 우리 자신들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비록 침공은 막지 못했을 지언정 방관자와 공범이 되지 않는 말자는 호소입니다.

2008년 10월
경계를 넘어

차례

머리말/ 바뀌지 않는 한, 끝난 게 아닙니다 05

09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일지
12	외국군대의 점령 후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
14	2001년 이전의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19	미국은 정말 테러범을 잡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걸까?
24	양의 가면을 쓴 점령군; 나토
27	민중의 신뢰를 잃은 꼭두각시 카르자이 정권
30	점령에 맞선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저항
33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Q&A
38	확대되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41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멈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45	아프가니스탄을 더 알고 싶다면!
52	“경계를 넘어” 소개



■ 아프가니스탄의 위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일지

(2001. 10. 7~ 2008. 10. 현재)

- 2001년 10월 탈레반 거점 지역에 미국 주도의 미·영 연합군의 공습 단행, 보복전 성격의 군사작전 '항구적 자유(Operation Enduring Freedom)' 개시.
- 11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살인적인 공습 진행, 수도 카불 함락.
- 12월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놓고 열린 독일의 본(Bonn) 협상에서 과도정부 수립 시 미국이 지지하는 하미드 카르자이를 대통령으로 임명하기로 결정. 유엔 안전보사회 결의안 1386호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군 중심의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 창설.
- 2002년 6월 아프간 부족장 회의인 로야 지르가(Loya jirga)에서 카르자이를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선출.
- 12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나는 가스수송관 건설 계획에 합의.
- 2003년 10월 국제안보지원군 작전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확대.
- 2004년 1월 아프가니스탄 의회가 새 헌법 승인.
- 4월 베를린에서 23개의 공여국가들이 8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
- 10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 결과 하미드 카르자이가

당선.

- 2002 ~ 2004년 저항세력의 무장 게릴라 수의 증가, 탈레반이 미영 연합군과 아프간 정부군, 경찰에 맞서 남부 칸다하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을 재탈환
- 2005년 9월 30여년 만에 첫 의회와 지방 선거 실시.
- 2006년 5월 카불에서 점령에 저항하는 무력시위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하고 미군 차량이 파괴됨. 2001년 탈레반이 무너진 이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
5~6월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벌어진 저항군 대 아프간 정부군과 연합군 간의 전투에서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
6월 나토군이 340회에 걸쳐 공중폭격 진행.
8~10월 미국으로부터 이양 받은 국제안보지원군의 작전 지휘권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확대.
- 2007년 5월 탈레반의 최고 군 지도자인 몰라 다둘라(Mullah Dadullah)가 미군과 아프간 군과의 전투 중 사망.
11월 북쪽 바그람 지역에서 의회의원들을 겨냥한 폭탄 공격으로 41명이 사망.
- 2007년 한 해 동안에만 미국과 나토, 아프간 정부군의 공격이 8,950 차례 진행.(2004년에 있었던 공격 횟수의 10배)
- 2008년 8월 7일 현재 2002년부터 52만 7천 명의 군인들이 나토군 중심의 '국제안보지 원군' 작전 수행 중(약 1만 4천 8백 명의 미군 포함).
2001년부터 2만 명 병력이 '항구적 자유 작전' 수행

중(약 1만 8천명의 미군 포함).

- 2008년 상반기 아프가니스타인에서 살해된 민간인의 수가 2007년에 비해 3분의 2 가량 증가. 1월부터 7월 사이 나토군은 362톤의 폭탄을 투하.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나토군의 폭탄 사용량은 2006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양과 같았음.
8월 22일 미군의 폭격으로 마을 주민 90명이 사망.
(이 중 6명이 어린이, 19명이 여성)



■ 할아버지와 손자



외국군대의 점령 후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

※ 모든 통계수치는
2006년 ~ 2008년 동안 발표된 자료를 참조.

■ 악화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건강 상태

- 태어나는 유아의 1/4, 5살 이전에 사망
- 임산부의 1/6, 출산 중 사망
- 평균기대수명이 42세로 점령 이전보다 낮아짐
- 도시지역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1.28개, 시골 지역은 0.22개
- 점령 이전에는 없었던 HIV/AIDS와 같은 질병이 확산
- 2008년 겨울을 앞두고 500만 명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놓여있음 (아프간 전체 인구 약 3천 2백만 명)

■ 여전히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들

- 89%의 여성이 가정폭력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50%가 성폭력을 경험
- 전체 결혼 중 60%가 당사자인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이루어짐
- 결혼하는 신부의 57%가 16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 2007년 한 해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이 4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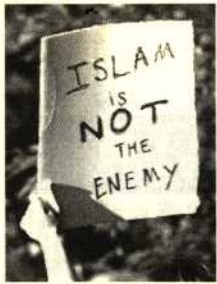
■ 미래를 빼앗긴 아이들

- 5세~14세 어린이들의 30%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
- 50%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며, 특히 여자 어린이들은 대다수가 여전히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아편에 중독된 어린이의 수는 최소 6만 명

■ 전쟁과 점령으로 인한 인명 피해

년도	내용
2001년 ~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명 ~ 1,300명 사망(<대안 국방 프로젝트 Project on Defense Alternatives>) 20,000명 ~ 49,600명 사망(영국 일간지 <가디언>)
2003년 ~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 사망자 수 약 백여 명 내외(언론에 보도된 내용 종합)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 저항세력, 보안군을 합쳐서 약 1,500명 사망(AP통신)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3,700명 중 민간인 1,000여 명(아프간 정부와 유엔 합동위원회 통계) 민간인 사망자 4,400명(<휴먼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ch>)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8,000명 이상이 사망, 그 중 1,500명이 민간인 (AFP 통신)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 동안 폭탄 공격, 납치, 총격 등 전쟁과 점령으로 급증한 폭력으로 인해 약 2,500명이 사망. 그 중 1,000명은 2008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사망(<휴먼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ch>)

※ 미·영연합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외국군대의 점령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인명피해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수치는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인 보고서와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만 가능하다.



2001년 이전의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소련, 아프가니스탄에서 베트남을 만나다

1 1978년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던 인민민주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집권을 하고 타라키(Nur Muhammad Taraki)가 대통령이 됩니다. 인민민주당 정부는 여성,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일부 변화를 꾀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보수적인 이슬람주의자들과 부족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향해 투쟁을 벌입니다. 1979년 11월에는 타라키에 이어 아민(Hafizullah Amin)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이슬람주의자들이 친소련 정부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민이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2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아민을 제거하고 카르말(Babrak Karmal)을 대통령 자리에 앉힙니다.

1979년은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1979년 초에 아프가니스탄 왼쪽에 있는 이란에서 친미 정부를 무너뜨리는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은 주요 석유 생산지이자 무기 판매처이자 군사기지인 이란을 잃게 됩니다. 또 1979년 말에 이란 오른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이 들어가자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고, 자신이 베트남에서 당했듯이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의 베트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슬람주의자들, 즉 무자헤딘(Mujahedeen, 전사)을 지원합니다. 즉 아프가니스탄이 미국과 소련의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 혁명과 소련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1980년 1월에 발표한 카터 독트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터는 독트린에서 '페르시아 만 지역을 장

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미국의 주요한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필요한 방법을 동원해 이러한 공격을 무찌를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1980년 초에 카터가 물러난 뒤 들어선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는 대소련 전쟁을 벌이는 무자헤딘에 대한 지원이 급증합니다. 미국의 지원은 직접적이기 보다 주로 파키스탄 정부, 그 가운데서도 군부와 정보기관 ISI를 통해 전달됩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무자헤딘을 지원한 액수는 1980년에 3천만 달러에서 1986년~1989년 사이에는 매년 10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무자헤딘 가운데서도 굴부딘 헤크마티아르(Gullbuddin Hekmatyar)에게 지원이 집중되었는데, 파키스탄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가 파키스탄과도 협력할 것이며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잘 실현할 인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자헤딘이 미국이 지원한 스텔링 미사일로 소련의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격추 시키면서 싸우는 동안 소련은 고르바초프 정부가 들어서고 심각한 내부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1989년에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였고, 10년간의 전쟁으로 남은 것은 150만에 이르는 시신과 500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 그리고 500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었습니다.

탈레반, 권력을 잡다

1 1992년, 무자헤딘 세력이 소련이 지원하던 나지불라(Najibullah) 정부를 무너뜨리고 카불을 장악한 뒤 랍바니(Burhanuddin Rabbani)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여성은 정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집을 떠날 필요가 없다,' '여성은 눈길을 끄는 옷이나 장식적인 장신구를 걸쳐서는 안 된다,' '여성은 향수를 써서는 안 된다,' '여성들의 장신구는 어떤 소음도 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크게 말하거나 웃으면 안 된다,' '여성은 집을 떠날 때 반드시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령을 발표합니다.



■ 부르카를 쓴 여인들

미국이 탈레반을 공격하면서 탈레반의 여성 억압 정책을 구실로 삼았지만, 탈레반 이전에 미국의 지원으로 권력을 잡은 무자헤딘도 강력한 여성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무자헤딘 정부가 들어선 뒤, 이번에는 헤크마티아르, 도스툼, 마수드, 랍바니 등 각 무자헤딘 세력들 사이에 카불의 권력을 놓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10년에 걸친 소련과의 전쟁에 이은 무자헤딘들의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파괴될 대로 파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지역의 난민촌과 이슬람 학교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 질서를 세우겠다며 세력을 넓힙니다.

탈레반이 활동하던 초기에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탈레반을 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탈레반이 철저하게 각 무자헤딘 세력을 무장해제 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무자헤딘 세력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향한 파괴나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으며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하여 1996년에는 카불을 장악하였고, 탈레반에게 밀려난 무자헤딘 세력들은 <아프가니스탄 구원을 위한 이슬람 연합 전선(United Islamic Front for the Salvation of Afghanistan, 일명 북부 동맹)>을 결성하여 탈레반에 맞섭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2001년에 미국과 함께 탈레반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습니다.

탈레반은 자신이 장악한 지역에서 여성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종 일터에서 여성들은 해고하는 동시에 여학교를 폐쇄하는 등의 여성 억압 정책을 실행합니다. 미국은 탈레반이 여성들에 대한 강력한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탈레반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몰려난 마당에 여러 세력들이 계속 전투를 벌이는 것보다 특정한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에 묻혀 있는 석유와 가스에 접근하기가 보다 쉬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억압은 탈레반이 미국의 정책에 대항할 때만 적용되는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그리고 탈레반과 미국

1 984년 오사마 빈 라덴은 <마크타브 알-카디마트(Makhtab al-Khadimat)>라는 조직(1988년에 알 카에다로 바뀜)을 결성하고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대소련 전쟁을 벌였으며, 1989년 소련 철수 이후에는 고향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게 되자 이때부터 미국과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고, 미국은 이것을 오사마 빈 라덴의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의 화학 무기 공장이라며 수단에 있던 가장 큰 의약품 공장을 폭격합니다. 또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의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가 있다며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여 수 십 명을 살해 합니다. 미국이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던 당시는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일명 '지퍼 게이트'라고 불리는 섹스 스캔들에 휩싸여 있던 때여서, 클린턴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을 폭격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폭격 이후 미국은 탈레반에 대한 공세를 계속 합니다. 1999년에는 미국이 주도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의안 1267호를 채택하여 탈레반이 가진 해외 은행 자산을 동결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운영하던 아리아나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 시킵니다. 또 2000년

에는 미국이 결의안 1333호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런 제재 조치에 대해 미국은 탈레반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제재 조치의 영향은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식량, 의약품 등의 부족 상황이 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탈레반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면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석유-가스 수송관의 건설을 위해 9.11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탈레반과 접촉을 계속하였습니다.



■ 탈레반 전사



미국은 정말 테러범을 잡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걸까?

오 늘날, 이라크 침공이 조지 W. 부시 정권의 온갖 거짓과 사실은폐, 왜곡 선전에 의해 이끌린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미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패권적인 시각이 5년 넘게 점령을 유지해온 원천이 되고 있죠.

반면, 미국 정부가 9.11 사건이 있는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행위에 대해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엄연히 말해,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을 공격한 것도 아니었고, 당장 미국을 상대로 한 2차 공격이 임박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유엔 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 조항을 미국 정부가 제멋대로 해석함으로써 저질러진 불법적인 침공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흡사 9.11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서둘러 침공을 감행했을까요?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막대한 돈과 인명손실을 피할 수 없는 군사적 방안보다는 외교적인 방안에 주력했겠지요. 실제로 침공이 시작되기 직전, 탈레반 정권은 제3국에서의 공정한 재판이 보장만 된다면 오사마 빈 라덴 등을 넘기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나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미국의 진짜 침공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리에게 덤비는 자, "엉덩이를 걷어차 주겠다"
- 조지 W. 부시

세 계를 지배하는 유일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는 마치 거대한 독을 쌓아 유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 번 쌓기는 정말 힘들지만, 독에 생긴 작은 균열이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견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미국 정부와 지배집단은 미국이 언제, 어디서, 어떤 수준의 힘에도 맞서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미국방부의 "전방위적 지배(Full Spectrum Dominance)" 원칙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2000년 IT산업의 거품 붕괴로 급격히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특단의 계기가 필요했었습니다. 더불어 정치적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어떤 공격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했었구요. 그를 위해서는 단지 19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것(게다가 그 중 15명이 친미왕정이 통치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힘을 과시할만한 좀 더 중량감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 미국 hegemony

모두가 탐내던 대륙의 교차로를 선점하라

후 시 바둑을 두어본 분들은 포석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집을 차지하기 위해 초반에 미리 중요한 길목에 돌을 벌여놓는 걸 포석이라고 한다지요.

위로는 중앙아시아, 오른쪽으로는 서남 아시아, 왼쪽으로는 중동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누가 그 곳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유라시아의 세력 판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알렉산더 대왕과 칭기스칸 같은 세계적인 정복자들의 지배를 한번 씩 거쳤던 곳이 아프가니스탄이죠. 1979년부터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점령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고, 소련이 해체된 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견제할 교두보로 아프가니스탄에 눈독을 들였던 겁니다.

사실 파키스탄에 있던 아프간 난민촌에서 생겨난 탈레반 조직이 파키스탄 정보국(ISI)을 통한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96년 아프간 국토의 3분의 2를 장악할 때만 해도 미국의 상당수 정책 입안자들은 1920년대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아프가니스탄에도 친미정권이 탄생했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죠. 그러나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파사건이 일어나고, 이듬해 그 주동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알카에다 조직의 비밀캠프가 있다고 알려진 아프간을 폭격하면서 미국과 탈레반의 관계는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거의 실수를 거울삼아(?) 이제는 좀 더 확실한 친미정권을 그 곳에 세워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석유가 평평 나도 날라야 보배다

“ (카스피해 지역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내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236조 세제곱 피트 이상과 맞먹는다. 그 지역의 총 석유 매장량은 11년 동안 유럽 전체의 석유 수요량에 해당하는 600억 배럴 이상에 달하며,

일각에서는 2천억 배럴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 단,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 지역의 광대한 에너지 자원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장까지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다. …… 해결책은 간단해 보인다. '신(新)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 그것이다. ……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그 대가도 아주 클 것이다. …… 가능한 유일한 루트는 아프가니스탄을 가로지르는 것인데 …… 수송관이 가로지를 영토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정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탈레반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나라들과 투자자들, 우리 회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승인된 정부가 그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는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수송관의 건설은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 발언은 미국의 다국적 석유회사인 유노칼(Unocal)의 국제관계담당 부사장 존 J. 마레스카(John J. Maresca)가 1998년 2월 12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 3년 전의 일이지요. 과연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여길 수 있을까요?



■ 아프가니스탄 가스관 계획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원인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수송관 건설 경로 확보입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이던 시절 탈레반의 사절단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가는 수송관 건설을 협의하기 위해 텍사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8년 알 카에다가 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 두 곳을 폭파하고, 뒤이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면서 유노칼도 아프가니스탄에 수송관을 건설하려던 사업을 중단하게 되죠. 사업에 참여했던 다국적 석유회사들은 준비 과정에 들어간 수백만 달러를 공중에 날리게 된 거구요.

그러나 그 뒤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미국 정부는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로 유노칼의 고문이었던 잘메이 칼릴자드(Zalmay Khalilzad)를 임명하고, 뒤이어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으로 역시 유노칼의 고문으로 일한 바 있는 하미드 카르자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2001년 12월 27일, 새로 들어선 아프가니스탄의 친미정권은 투르크메니스탄 및 파키스탄과 수송관 건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게 된답니다.





양의 가면을 쓴 점령군; 나토

4 토는 2001년 12월 20일 유엔의 결의안 1386호를 통한 국제안보지원군 창설로 아프가니스탄에 직접적인 개입을 승인받았습니다.

국제안보지원군은 애초에는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의 설립을 돕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창설되었지만, 사실상 저항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인 작전을 별도로 수행하면서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나토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군사작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8년 7월 21일 현재 국제안보지원군은 나토군을 중심으로 40개 나라들(나토 소속 26개국, 비나토 소속 14개국)에서 온 5만 2천 7백 명의 군인들로 이뤄져 있는데, 나토로서는 '국제안보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이 아닌 중동지역에서의 가장 큰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토군의 군사 작전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에 동원된 것에 불과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이용해 카스피해의 천연자원을 통제할 수송관을 건설하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소위 반미 국가인 이란을 군사, 정치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미국의 판단에 동원된 것입니다.



■ 국제안보지원군 로고



출처 : 국제안보지원군 ISAF

■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국제안보지원군 작전수행 지역

그러나 나토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 장악을 위한 군사적 힘의 과시에 동원된 것이 사실이지만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개발 이익과 아프가니스탄을 거점으로 한 중앙아시아 나라들과의 이해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파병의 배경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선포했을 때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는 다르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석유개발사업권과 같은 자신들의 이권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체는 2003년 5만 4천 명의 미군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유럽에 배치되었고, 미 육군이 독일과 이탈리아에 배치되었죠. 급기야 2006년에는 유럽의 3분의 2나 되는 나라들에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병력이 주둔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유럽 국가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584>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나토가 '국제안보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대적인 군사적 개입을 한 것이 미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시키는데 큰 힘을 실어 주었다는 점이지요.

나토군은 애초에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작전권이 확대된 이후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을 더욱 불안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발생한 카불에서의 '세레나 호텔' 폭탄 사건은 가장 '안전하다'는 도시마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공격과 사망자 수의 증가는 물론 강간, 폭력 사건과 같은 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나토군의 군사 작전과 점령은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의 반발과 저항을 확산시켰고 이것은 나토군의 임무가 점령군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중의 신리를 잃은 꼭두각시 카르자이 정권

미 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과 동시에 탈레반 정권을 대체할 새로운 친미정권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01년 12월에 과거 탈레반 정권에게 쫓겨났던 세력들이 모여 임시과도정부의 설립을 합의하고 과거 무자헤딘 출신의 하미드 카르자이를 통치위원회 수장으로 선출합니다. 2002년 6월에는 부족장들의 회의인 로야르지가에서 카르자이를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미국 정부가 공동여 만든 아프가니스탄의 첫 선거에서 하미드 카르자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정부가 하미드 카르자이를 선택한 것은 그가 오랫동안 CIA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데다,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파슈툰(Pashtun) 민족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미드 카르자이는 1982년에 파키스탄 군정보부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 민족해방전선(Afghan National Liberation Front, ANLF)에서 활동했는데, ANLF는 미국 CIA와 파키스탄 군 정보부가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여러 무자헤딘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카르자이는 탈레반이 카불에서 세력을 확장할 때 그들에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에 자신의 아버지가 암살당한 후 탈레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죠. 카르자이 정권은 미국 정부, 그리고 2001년 점령



후에 미국의 재정 및 무기 지원으로 세력이 강화된 군벌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강한 부족공동체 중심의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부족공동체들이 준군사조직을 갖추는 군벌의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침공 후 아프가니스탄 정부 수립에 참여한 군벌들의 과거도 카르자이의 꾀꾀한 이력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이들은 1996년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권력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군벌들입니다. 이 군벌들은 친미정권이 집권하던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얻은 권력을 휘두르며 대량학살과 고문, 강간, 무차별적인 로켓 폭격 등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미국의 도움으로 무기를 되찾고 친미정권의 공무원직을 차지함과 동시에 지역의 각종 이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아프가니스탄은 총을 가진 자가 원하는 대로 돈과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죠.



KABUL 1992-1996

아프가니스탄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8년 세계 부패 보고서에서 1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고, 세계부패국가순위에서 180개국 중 172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이들 군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망쳐놓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70%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뇌물로 지불되는 돈은 무려 1억 ~ 2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액수는 2006년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국가발전예산의 절반과 같은 금액입니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죠. 아프간 부패감시기관이

2007년 2월에 실시한 부패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부패라고 생각한다고 조사되었고, 응답자의 1/4은 정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지불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포린 폴리시>지가 발표한 '실패한 국가 지수'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2005년에 11위, 2006년에 10위, 2008년에 8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군의 점령,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받은 정부라는 이중고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LATUFF 2007



점령에 맞선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저항

점 령군은 침공 초기에 월등히 뛰어난 화력으로 쉽게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민중의 저항에 부딪쳐 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길어질수록 확대되고 있는 무장투쟁 방식의 저항은 점령군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며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2002년 초부터 동남쪽에 위치한 팍티아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재규합하기 시작한 탈레반은 점령 상황의 고통을 현실로 경험한 사람들의 참여로 그 세가 급격히 불어났고, 2003년과 2005년 사이에는 남부 칸다하르를 중심으로 많은 지역을 재탈환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들어서서 점령군에 대한 저항공격이 거세지자 점령군은 공습의 강도를 높였고,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와 피해가 늘어날수록 저항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2007년에는 탈레반이 남부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여러 지역에서 준정부조직을 구성할 정도로 세력이 확대되었으며, 2007년 11월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체 면적의 54%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심지어 아프간 정부의 병력과 점령군이 집중되어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던 수도 카불마저도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들어서서 4월에 카르자이 대통령에 대한 암살시도에 이어서 6월에는 탈레반 저항세력 30여명이 남부 칸다하르 주의 사르포사 교도소

를 습격해 죄수 1천여 명을 탈출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카불에서는 대규모 폭탄공격이 연달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이 화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꾸준히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군대의 주둔과 꼭두각시 정부 아래서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습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 점령군의 만행과 정부의 부패에 분노한 사람들, 전쟁 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점령군을 향해 총을 들었습니다. 총을 선택한 사람들은 가장 알려져 있는 조직인 탈레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조직을 꾸려 작은 규모로 점령군과 정부군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령군과 서방언론은 그들 모두를 그냥 싸잡아서 “탈레반”이라 부릅니다.

한편, 무장저항투쟁 이외의 다른 저항의 방식들은 언론을 통해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또한 그들의 활동이 눈에 보일 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1970년대에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에는 많은 진보적인 정치조직과 민간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었지만, 소련의 점령과 북부 동맹군 정권, 탈레반 정권을 거치며 탄압을 받아 대부분 해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좌파 정치조직들이 탈레반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력과 자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은 군사화된 아프간 정치판에서 작은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 조직들도 역량과 자금의 부족, 그리고 점령군과 군벌조직의 탄압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활발하게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단체들이 새로이 조직되거나 오랜 탄압을 견디고 살아남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희망의 불씨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가니스탄 여성혁명연합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이하 라와)>의 활동입니다.

라와는 1977년에 카불에서 인권과 여성의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1980년대 소련의 침공을 받은 후 라와의 활동가 일부가 카불의 감옥에 수감되고, 나머지는 파키스탄의 난민촌으로 피신하여 여성

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구호와 원조활동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 하였습니다.



■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여성들

현재에는 파키스탄 난민촌과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와 고아원 운영, 정치 잡지 발행, 그 밖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Q&A

Q. 9.11 사건과 아프가니스탄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A.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직접적인 원인은, 9.11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알 카에다 조직 구성원들을 모두 체포해 인도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침공 직전에 탈레반 정권이 빈 라덴을 자국 내 이슬람 법정에 세우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미국 정부가 거부했고, 침공이 시작된 지 일주일 뒤 제3국에 인도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탈레반의 제안 역시 미국에 의해 거부당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죄가 있냐 없냐를 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는 그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 조지 W. 부시) 이는 만약 미국이 정말로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원들을 검거해 9.11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외교적인 압력을 동원한 탈레반 정권과의 협상으로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대신 미국 정부는 미리 정해진 수순을 밟듯 군사적인 해결에만 몰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미국 정부는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이 9.11 공격을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 카에다의 전신인 <이슬람 전사 네트워크(Islamic Militant Network)>가 미국 중앙정보국이 키워내고 유지해온 사실상의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작품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미국 정부는 자

국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9.11 사건을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Q.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미 끝나고 지금은 탈레반 잔당들에 대한 소탕작전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초기에 미·영 연합군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서너 달 만에 아프간 국토 대부분에서 밀려난 탈레반 세력은 그 뒤 점차 세력을 회복해 지금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다시 장악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탈레반의 이념 및 노선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외국 군대의 점령과 꼭두각시 아프간 정부의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는 부족들과 군벌들에 의한 무장저항도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 및 나토군에 의한 폭격이나 무장 세력과의 전투, 폭탄 공격 등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들의 수가 2008년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2007년의 두 배에 육박하고, 그와 동시에 외국 군인들의 사망자 수도 2007년의 232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장세력의 지도부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두 나라의 국경지대에 은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가 아프간 전쟁의 전선을 파키스탄으로까지 확대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함으로써 이제 전운은 이웃나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탈레반을 지지하는 건가요?

A. 앞서 말했듯이, 날이 갈수록 탈레반의 세력이 과거 수준을 넘어서 강화되고 확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아프간 민중들의 다수가 탈레반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탈레반이 저질렀던 악행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 그들의 부활을 우려스러운 눈

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외국 군대의 점령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파괴가 날로 커지고 민중들의 고통이 심화됨에 따라, 그것이 탈레반 세력에게 또 다른 폭력과 탄압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돼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치닫는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의 한 연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탈레반을 싫어하지만 74%가 (탈레반과 현 정부 간의)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덧붙이자면, 미국과 서구의 정부와 언론들은 점령에 반대해 무장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무조건 탈레반이나 알 카에다라 부르지만, 외국 군대의 점령에 반대한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탈레반과는 다른 배경과 견해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저항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탈레반

Q. 인권을 탄압하고 테러를 저지르는 탈레반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군의 주둔은 필요악이 아닌가요?

A.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들과 아프가니스탄 내의 일부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디에도 슬퍼하거나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구 문화와 종교에 대한 극단적인 배척에서 비롯된 문화유산 파

괴와 자의적인 처형과 고문 등의 인권침해, 특히 교육과 직업, 여행의 자유 박탈 등 여성들을 상대로 한 야만적인 차별과 억압은 그들이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했지요.



그러나 외국 군대의 점령이 7년째 지속되는 오늘날의 아프간 민중들의 현실은 탈레반 집권 당시에 비해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외세의 힘으로 새로이 권력을 차지한 특권층들은 서구의 원조 자금을 착복해 호화 주택과 고급 승용차 구입에 썼습니다. 반면 난민 한 식구가 살 수 있는 5천 달러짜리 조잡한 진흙집도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겨울만 되면 수백 명이 추위에 얼어 죽는 일이 반복됩니다.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편 농사에 기댈 수밖에 없어 오늘날 세계에서 생산되는 아편의 9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됩니다. 그 덕분에 서구의 홍보회사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의 동생 아마드 왈리 카르자이는 아프가니스탄 최대의 마약상이 되어 막대한 돈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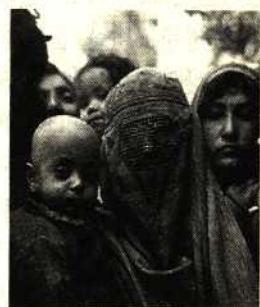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미군과 나토군의 공습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망한 민간인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그 희생자 수로 치면 매년 9.11과 같은 사건이 한번 씩 일어나는 셈이 됐지만, 미국과 서구 국가들은 그런 민간인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단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부수적 피해'로 여길 뿐입니다.

Q. 점령의 대안은 뭘까요?

A. 결국, 모든 외국 군대가 즉각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을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점령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일 겁니다. 이는 아프간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신경을 끄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정 그들의 생명과 인권,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생산기반의 철저한 파괴로 인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안을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든 간에 다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많은 나라가 폭력이 아닌 대화와 정치로 어려움을 극복해왔듯이 아프간 민중들도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외세가 정치·경제·외교·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세력을 밀어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과 같은 부당한 개입을 중단한다면 말입니다.

"(외국 군대의) 엄청난 군사적 공격으로 탈레반을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남녀노소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국민들의 반란을 통해 무너뜨려야 합니다."

- 〈아프간 여성혁명연합〉 성명서 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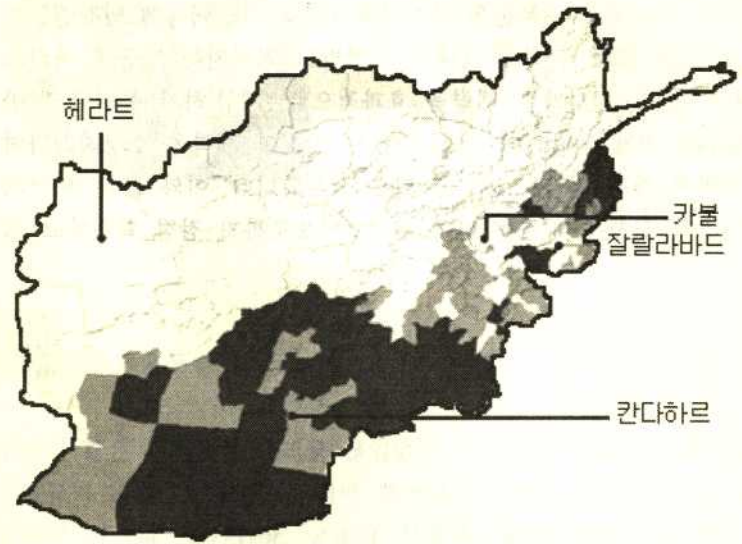
확대되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2 001년 10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뒤, 그 해 연말 탈레반 정권까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전투가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아프가니스탄인들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과 2005년 사이에는 탈레반이 남부 칸다하르를 중심으로 상당수 지역을 재탈환하며 점점 세력을 확대했고, 미군과 영국군은 탈레반을 '소탕'하기는커녕 전장에서 점점 밀려났죠. 그래서 수도 카불을 중심으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아프간 과도정부의 설립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창설했던 국제안보지원군의 작전지역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확대되었어요. 2006년부터 국제안보지원군은 남부지방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과의 격렬한 전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2006년 8월 1일에는 아프가니스탄 남부지역에 대한 지휘권을 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국제안보지원군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는 탈레반이 남부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여러 지역에서 준정부조직을 운영할 정도로 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2008년 9월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9년 2월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8천 명을 감축하는 대신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병력 4천5백 명을 증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토군도 2006년부터 계속 회원국들에게 추가 병력 파병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8년 9월 프랑스 정부는 3천 여 명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프랑스군의 수를 100여명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 현황지도. 회색과 검은색 부분이 탈레반 세력이 통제하는 지역.

이렇게 미군과 나토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전쟁이 보다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제 주변 지역까지 위협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1979~198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파키스탄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대소련 전쟁을 벌이는 무자헤딘들에게 돈과 무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다시 미국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파키스탄에서는 미국의 침공과 파키스탄 정부의 대미 협력을 비난하는 목소리와 투쟁이 거세졌고, 결국 파키스탄인들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던 무사라프 대통령은 2008년 8월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9월 3일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미 공군기지에 주둔하던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와지리스탄 남부에 있는 한 마을을 급습해 20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

다. 역시 알 카에다와 탈레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게 그 명분이었는데, 사망자의 대부분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그에 비례해 국내적인 반발도 거세지는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가 반미·친탈레반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미국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탈레반 세력을 소탕하겠다고 파키스탄까지 작전 지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으로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멈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반

반전운동은 멈춤? 전쟁은 진행형!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등록금인상, 비정규직 문제, 개발의 불도저에 쫓겨나는 사람들, 대운하 건설, 공공기관들의 사유화, 물가인상, 교육의 서열화, 의료민영화, 방송장악, 한미 FTA, 공안기관들의 부활 등등. 어디에 힘을 모아야할지 모를 만큼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침략 전쟁과 점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위기에 처한 미국 자본주의는 군사적 패권주의를 선택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원을 약탈하는 등 그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군대가 그곳에 파병되어 있다는 것이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또 다른 대륙, 또 다른 나라에서 대리전의 형태로 검은 마수를 뻗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점령을 끝내고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의 작은 행동역시 계속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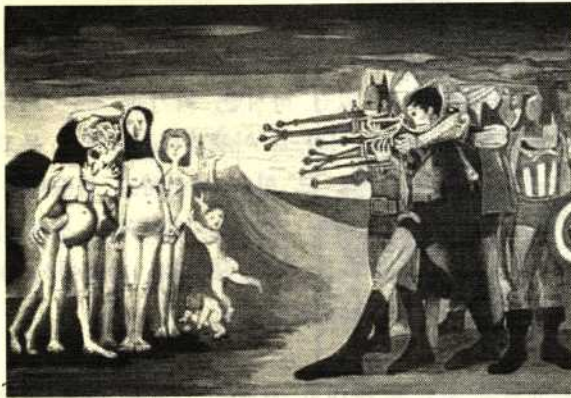
■ "셀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주변에 풀 죽어 있는 반전 단체나 사람들은 없나요? 전쟁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 단체들은 없나요? 우리 가까이에 반전 운동가

들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둘러 '우리의 행동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던 모임들, 단체들, 그리고 부지런히 소식들을 올리고 있는 사이트는 없는지 한 번 찾아볼까요?

■ 전쟁의 동맹국들에게 항의 메시지를 날려보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는 미국과 그 군사적 우방국들로 불리는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나토에 포함된 유럽국가들, 미국의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우리가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 피의 전쟁에서 손을 떼시오!'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보내도 좋고, 직접 쓴 이메일과 엽서를 해당 국가의 정부에 보내봅시다.



■ 피카소의 '한국전쟁에서의 학살'을 재구성한 하디타(Haditha)에서의 학살¹⁾

1) 2005년 11월 19일에 이라크 알 안바(Al anbar)라는 서부지방의 하디타(Haditha)에서 미 해병대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이다. 의도적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이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살해한 것으로 24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 전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기업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침략과 점령에는 군대뿐만 아니라 파병된 군인들을 지원하고 점령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막대한 이윤과 자원개발권을 대가로 챙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노칼, 할리버튼, 벡텔, 블랙위터 등 전쟁으로 그야말로 때돈을 번 이들 기업의 행태를 제대로 밝혀서 널리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잘못된 일에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는지를 한번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각자가 찾아낸 진실들을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한 번 보여주세요. 천천히, 하지만 그들이 질려서라도 나쁜 짓을 그만 두도록 꾸준한 감시와 항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 궁금한 것은 참을 수 없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미국사람들이 나빠서일까요? 사람들이 원래 싸우는 것을 좋아 해서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끝나면 지구상에는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누구나 한번쯤 물어보았을 법한 전쟁에 관한 의문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어 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이나 주변 사람들과, 아니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단체들의 모임에 참여해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참, <경계를 넘어>에서도 전쟁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직접 행동에 함께 해요

반전집회나 전쟁의 참상과 본질을 알리는 행동들,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행동들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 년에 네 번이라도,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전쟁과 점령은 이제 끝나야한다고 한 번 외쳐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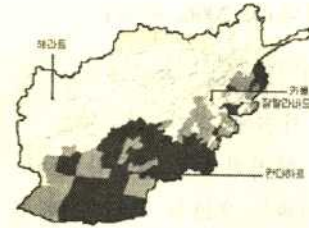
전쟁에 반대하는 직접행동에 참여해 각자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실천해보는 거예요.

■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무엇을 읽어야 할까?

전쟁에 동조했던 언론들이 꼭 잡고 있는 한국에서는 현재 어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느날 갑자기 '평'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전쟁을 일으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속셈을 분석해서 전하는 신문과 잡지, 그리고 단체들의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을 매일매일 이메일 확인하듯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 반전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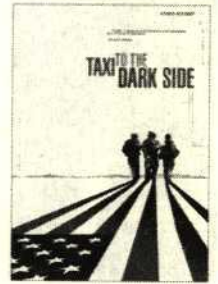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을 더 알고 싶다면

■ 영화로 만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 택시 투 더 다크 사이드 **Taxi to the dark side**
(다큐. 알렉스 기브니 감독. 2007. 미국)

2008년 아카데미 최우수 장편 다큐멘터리상 수상작으로, 2002년 미군에 구금돼 고문으로 죽은 아프가니스탄 택시운전사 사건의 조명을 통해 미국의 침략 전쟁의 이유와 전쟁 과정에서 자행되는 온갖 고문, 폭력과 같은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 화씨 9.11 **Fahrenheit 9/11** (다큐. 마이클 무어 감독. 2004. 미국)

2004년 대선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9.11테러와 부시 행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을 선택한 부시 행정부와 군수산업체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파병과 관련된 미국 계급사회를 들여다본다.



• 루스 체인지 **Loose Change** (다큐. 딜런 애버리. 2006. 미국)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준 9.11테러 사건에 대한 의문들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합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9.11의 또다른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판타나모로 가는 길 **The Road to Guantanamo**
(다큐극영화.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 영국. 2006)



미국의 대테러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판타나모 수용소로 이송되고 고문과 학대를 받는다. 미국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반인권, 반인류적 만행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내고 있다.

• 로스트 라이언즈 **Lions for lambs**
(극영화.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 2007.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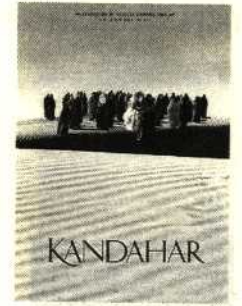
전투병 파병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놓고 미국 정책결정자들과 전쟁에 동원된 언론, 그리고 전장을 선택한 군인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과 선택을 보여주는 영화다.

• 인디스월드 **In this world**
(극영화.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 영국. 2002)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로 떠나야 했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겪는 세상의 잔혹한 현실과 소외감을 드러내 보여준다.

• 칸다하르 **Kandahar**
(극영화.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 프랑스, 이란. 2001)



아프가니스탄 내전 중 탈출한 주인공이 자살하겠다는 자신의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칸다하르로 떠나는 여정을 그린 영화로, 아프가니스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을 읽는다! 추천 도서

- 탈레반은 가고 부르카는 남고 (조재익, 다른우리, 2002)



한 방송기자의 20여일 간의 아프가니스탄전쟁
중군 취재기

- 탈리반 Taliban : war and religion in Afghanistan (피터 마스던, 아시아평화연대 옮김, 박종철출판사, 2005)



아프가니스탄의 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책으로는 국내에 유일하게
번역되어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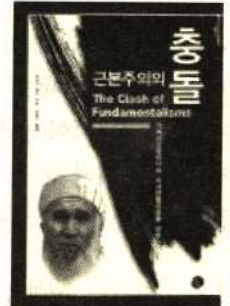
- 추악한 전쟁 Unholy wars : Afghanistan, America and international terrorism (존 K 쿨리, 소병일 역, 이지북, 2001)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테러 공방을 설명
하기 위해 1970년대의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 나가면서 냉전시기에 아프가니
스탄을 비롯한 중동국가들에서의 소련과 미국
의 이해관계 대립과정을 기자의 눈으로 설명하
고 있다.

- 근본주의의 충돌 Clash of fundamentalisms (타리크 알리, 정철수 역, 미토, 2003)

미국과 이슬람 국가와의 충돌을 다룬 아닌
'아메리코필리아 Americophilia'(미국숭배증)
과 '옥시덴털리즘Occidentalism'(미국을 악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라는 두 개의 '근본주의의
충돌'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 이슬람 : 9.11 세계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이희수, 청아, 2002)

이슬람문화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입문서로, 미국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문화, 그리고 무슬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점령은 이제 그만! 누구와 함께 할까요?

• RAWA :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여성 혁명 연합) <http://www.rawa.org>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전쟁과 점령 아래 벌어지는 전쟁 범죄와 인권침해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여성 조직

• Stopthear Coalition(전쟁중단연합) <http://www.stopwar.org.uk>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과 점령을 반대하는 영국 소재의 국제연대 조직

• A.N.S.W.E.R : Act Now Stop War and End Racism
<http://answer.pephost.org>

전쟁과 인종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미국 소재의 국제연대단체

• Human Rights Watch (휴먼라이츠 워치) <http://www.hrw.org>
매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감시와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국제적 인권 단체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 www.amnesty.org
전쟁범죄에 대한 감시, 처벌 그리고 전쟁 지역에서의 무기거래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인권단체

• 경계를 넘어 <http://www.ifis.or.kr>
대테러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고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수행하는 전쟁과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국제연대단체. 분석기사와 라디오를 통한 온라인 정보공유와 캠페인 및 회원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 길바닥 평화행동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단체. 매주 화요일마다

인사동에서 노래공연을 통해 평화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 개척자들(The Frontiers) <http://www.thefrontiers.org>
기독교라는 종교적 뿌리를 가지고 인류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는 국제단체. 주로 기아, 분쟁, 빈곤 지역에서의 현지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도 현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다함께 <http://www.alltogether.or.kr>
반전, 반자본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 계급운동과 사회변혁을 위해 국제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단체 웹사이트에서는 전쟁에 관한 현지 조직가들의 소식과 분석 기사들을 볼 수 있다.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http://www.sopra21.org>
인권과 평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아프간난민촌의 어린이학교 지원 사업에 주력했었고, 현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아이들 인권과 교육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한국 JTS(Join Together Society) <http://jts.or.kr>
정토회 산하 단체로 지구촌 곳곳의 빈곤, 기아, 분쟁 지역에서 인종, 종교, 민족, 성, 사상, 이념에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기아, 질병, 문맹퇴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
참여연대 내에 있는 평화군축센터는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관련 정책 뿐만 아니라 전쟁지역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자료 공유에 애쓰고 있다.

• 파병반대국민행동 <http://antipabyeong.jinbo.net>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전쟁과 점령중단과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반전단체연합체로 매년 반전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 소개

“경계를 넘어” 는요,

▷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곧 죽음과 파괴, 빈곤, 불평등, 차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필리핀, 콜롬비아 등 세계 곳곳의 민중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일으키고 있는 온갖 전쟁과 점령, 폭력, 착취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 배고픈 이들에게는 밥이 필요하고, 억압 받는 이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며, 차별 받는 이들에게는 평등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넘어]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사회를 넘어 서로 교류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세계를 꿈꿉니다.

▷ “경계를 넘어” 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 전쟁과 파괴, 점령에 맞서기 위한 집회, 거리 캠페인,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합니다.
-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할 일을 찾아가갑니다.
- 학교나 단체를 직접 찾아가 교육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 홈페이지와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정보의 제공과 교류, 소통을 이뤄갑니다.

▷ “경계를 넘어” 가 꿈꾸는 새로운 세계는, 많이 배우고 잘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지구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경계를 넘어” 사무실 안내

(120-19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7-7 1층
1F, 117-7, Bugahyeon 1-dong ,Seodaemun-gu, Seoul, Korea
전화 (02) 6407-0366
홈페이지 www.ifis.or.kr 전자우편 ifis32@gmail.com

“경계를 넘어” 후원 안내

- 회원가입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076770 (예금주 박의영)
우리은행 1002-329-429456 (예금주 박의영)